Digital & IT

빨라진 윈도7 PC로 갈아타볼까

고성능은 기본, 멀티터치까지 선보여

삼성 매직 스테이션·삼보 루온 F3 등 출시 봇물

구형XP PC 교체 시기 도래… 업계 소비자 유혹

윈도 비스타 이후 3년만에 출시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7이 모습을 드러내자 이를 탑재한 PC들도 잇따라 시장에 나오고 있다.

최근 침체에 빠졌던 PC업체들은 윈도7을 탑재한 노트북과 데스크톱 컴퓨터를 공개하면서 PC산업의 부흥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제품들은 윈도7에 탑긴 다양한 기능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감각적인 디자인과 개선된 성능으로 무장한 매직 스테이션 제품군 4종(DM-Z200, V200, R200, DN-Z200 등)을 시장에 내놨다. 새롭게 선보인 2010년형 매직 스테이션은 모두 윈도7을 탑재한 것은 물론 대용량 메모리도 장착했다.

고급형 제품인 Z200은 감성적인 디자인을 강조한 게 특징이다. 검은색을 기본으로 앞면에 붉은색으로 반짝이는 조명 효과를 넣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가격은 사양에 따라 128만~145만원.

V200은 500기가바이트(GB) 이상의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달았다. 기존 그래픽 카드에 비해 성능이 30% 이상 향상된 엔비디아의 최신 제품(지포스 GT220 1GB 등)을 탑재해 그래픽 처리 성능을 높였다. 다양한 부품들과 호환이 되는 모델로 PC 업그레이드를 자주 하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가격은 109만~148만원.

LG전자는 지난달 22일 '윈도 7' 출시에 맞춰 이를 탑재한'울트라씬(Ultra Thin)' 노트북 등 PC 신제품을 출시했다.

'엑스노트 T380시리즈'는 13.3인치 LCD화면, 두께 25밀리미터(mm), 무게 1.89 킬로그램(kg)으로 얇고 가벼울 뿐 아니라, 8셀(Cell) 배터리를 기본 적용해 최대 10.5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50만원대.

삼보컴퓨터는 윈도7을 탑재하고 멀티터치를 지원하는 일체형PC 신제품 '루온 F3'를 출시했다. 특이 이 제품은 윈도7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멀티터치를 세계 최초로 지원, 마우스나 키보드 없이도 손가락 2개로 화면을 자유자재로 늘이거나 줄일 수 있고 원하는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다. 190만원대.

소니 '바이오(VAIO)'도 윈도7이 탑재된 신모델 10종류를 공개했다. W, TT, NW, JS 시리즈 등 총 4개 시리즈의 노트북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지난 8월 출시돼 매진 사례를 기록하기도 했던 W시리즈의 신모델 3종은 10.1인치 화면에 윈도7 탑재하고 용량도 250GB로 높였다. 이 밖에 메인 메모리 4GB DDR2 메모리의 TT시리즈, 일체형 PC JS 시리즈 등이 눈에 띈다. 가격은 80만~200만원대까지 다양하다.

아수스도 윈도우 7을 탑재한 초슬림 노트북 UL 시리즈 4종을 출시한다. 이번에 출시되는 '아수스 UL 30A'는 윈도7의 64비트 버전을 탑재했으며, 인텔의 최신 초 저전력 CPU인 CULV CPU를 탑재해 더 빠른 컴퓨팅을 가능케 했다. 또 8셀 배터리와 아수스 전력 관리 프로세서인 EPU 탑재로 최대 12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했다. 가격은 79만~119만 원.

광주 금호월드 L정보통신은 "윈도7을 탑재한 컴퓨터에 대한 문의가 하루 수십통 걸려온다. PC시장이 빠른 속도로 XP에서 윈도7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기능을 가진 윈도7이지만 이를 탑재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컴퓨터를 주로 어떤 목적으로 쓸지 결정한 후 선택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삼성전자 매직 스테이션 제품 DM-Z200

삼보 '루온 F3'

소니 JS 시리즈

김치판매점 '오마이갓 돌산갓김치'

114 상담원을 웃긴 상호

■ 애견가게 '누렁이도 찰스로'
■ 숙박업소 '드가장 여관'
■ 음식점 '속풀고 버섯네'

'누렁이도 찰스로'(애견가게), '드가장 여관'(숙박업소), '회밀리가 떳다'(횟집). 전화번호 안내를 하던 114 상담원을 웃게 한 상호 1~3위에 각각 뽑힌 가게 이름이다.

kt cs가(www.ktcs.co.kr)가 4일 114의 날을 맞아 상담원 500명을 대상으로 '2009년 가장 웃긴 상호는'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누렁이도..'는 255개의 대상 상호 가운데 전체 상담원의 29%가 투표해 1위에 올랐고, '드가장..'은 21%를 득표했다.

이밖에 '오늘은 자장 내일은 짬뽕'(중화요리집), '속풀고 버섯네'(음식점), '찜하고 회뜰날'(횟집), '저 돼지예요'(삼겹살 전문), '잔비어스'(호프집) 등도 기발한 아이디어로 114 안내를 하던 상담원들을 웃게 만든 상호로 뽑혔다.

재미있다고 평가된 상호는 '오마이갓 돌산갓김치'(김치판매점), '추적 60병'(호프), '그 레벨에 잠이오니'(PC 방), '머리해 그리고 기억해'(미용실) 등이 있었다.

웃긴 상호가 많이 사용되는 업종은 고깃집, 치킨집, 미용실, 애견가게, 중화요리 전문점, 호프집 등이었으며, 주로 영화나 노래 제목을 패러디하고 단어의 발음을 활용해 업종을 설명하는 제목들이 많았다.

/연합뉴스

신종 플루에 재택근무 직장인 늘어

인터넷 메신저 이용 '쑥쑥'

최근 신종 플루에 감염돼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가정에서의 메신저 이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터넷 조사업체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10월26일~11월1일) 가정에서의 네이트온 메신저 이용자는 754만명으로, 그 전주(726만명)에 비해 3.7% 늘었다. 같은 기간 총 인터넷 이용자 수가 1.1% 증가한 것에 비하면 3배가량 높은 수치다.

이는 메신저를 활용하면 직장 동료나 업무 관계자와의 실시간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택근무 시 커뮤니케이션의 대체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메신저에서 화상과 음성 대화가 가능한 점도 메신저 이용 증가에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SK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는 "메신저로 문자 대화뿐만 아니라 음성 및 화상 대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기능을 잘 활용하면 집에서도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KT, DDoS 공격 막을 '클린존' 서비스

KT는 5일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서버에 대한 대용량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막아내는 '클린존(Clean Zone)' 서비스를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클린존 서비스는 KT IDC에 있는 고객사 서버로 들어오는 패킷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다 이상 트래픽을 탐지할 경우 방어시스템에서 트래픽을 분석, 정상 트래픽만 서버로 전송하고 유해 트래픽은 차단해 DDoS 공격 시에도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게 해준다.

이번에 출시된 클린존 서비스는 시범 서비스 중이던 7.7 DDoS 사이버테러 당시 고객사들의 서버를 안정적으로 방어해 서비스 품질을 검증받았다고 KT는 소개했다.

클린존에 가입하면 24시간 DDoS 공격 탐지 및 차단뿐 아니라 보안 네트워크 디자인 등 DDoS 대응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KT는 10여명의 정보보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용체계를 갖추고 있다.

KT는 클린존 서비스 체험을 신청하는 고객사에 대해 올해 말까지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서비스 계약을 할 경우 이용요금을 15% 할인해주기로 했다.

/연합뉴스